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1월 2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설교제목 :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십계명의 영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 때 관계가 시작됩니다. **김춘수의 꽃**이란 시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름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으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창조주), 엘 샤다이(전능하신 하나님), 엘 치드케누(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레(준비하시는 하나님), 엘 엘리온(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닛시(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로이(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평안의 하나님). 사실, 2계명과 3계명은 연관성이 큼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잘못 사용하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그냥 점을 찍던지, 한 페이지에 몇 번이 나오든 상관없이 붓을 다시 깨끗하게 씻고, 필사하는 사람 역시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하였습니다. 문자적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맥락적 의미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시한채 하나님만의 이름만을 가지고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자신들이 만든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병을 낫게 하거나 기적을 베푸는 주술적인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술은 사실상, 신을 감동시키거나 혹은 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3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가나안 주변의 종교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해설서인 신명기 14장을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14:1을 보면, 가나안의 풍속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자해 행위나 눈썹 사이 이마위의 털을 미는 행위 즉 머리를 삭발하는 애도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애도의 모습을 통해서 죽은 자를 숭배하거나, 죽은 자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 심하게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풍습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신14:2)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의’**로 번역된 **‘세굴라’**는 **‘개인의 소유물, 특별한 보물’**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개인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구조적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자녀니’(빠님 앓템)란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고, 2절도 ‘너희는 성민이라’(암 카도쉬 앓타)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두 본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자녀,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장례문화를 따르지 않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명기 14:21을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신21:21) 동물의 사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이나 이방인에게 상거래의 목적으로는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방인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였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그 젖을 들판에 뿌림으로 풍요를 기원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기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문맥의 서두인 1절과 2절과 문맥의 마지막 절이 21절을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는 수미상관식 구조를 통해서, 다시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체성을 강조합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사43:7)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전10:31**에서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이란 의미 가운데 반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어 나타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요, 성공입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일2:17**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십계명의 2계명과 3계명이 연관성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문자적, 사회맥락적, 더 나아가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각각 설명해 봅시다.
- 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더불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